

# 光州日뢖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 222 —8111 kwangju.co.kr 제20213호 1판 (음력 2월 23일) 2016년 3월 31일 목요일

# 공식 선거운동 개시…불붙은 유세전

오늘부터 12일 자정까지 … 더민주·국민의당 주말 호남-수도권 '호남선' 바람몰이

## ① 선택 4·13 D-13

# 더민주, 야권연대 압박에 국민의당 "양당체제 종식"

4·13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이 31일부터 시작된다. 총선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총선 전날인 4월 12일 자정까지 13일 동안 본격적인 유세전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3·4면〉

중앙선관위는 30일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31일부터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부터 수도권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며 바람몰이에 나선다. 새 누리당은 수도권의 '취약 지역'에 지도부가 총출동,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는 한편 '야권 연대' 바람 차단에 나선다. 또, '텃밭'인 대구(TK)와 부산·경남(PK)에서 일부 야당·무소속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어 수도권과 TK·PK를 집중적으로 오가는 '경부선 유세'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은 수도권과 호남에서 격돌한다. 두 당의지도부는 이번 주말 호남을 경쟁적으로 방문,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수도권 접전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등 선거 기간동안 '호남선 유세'에 나선다.

우선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다음 달 1일 전북에서, 2일에는 광주에서 선거 유세를 한다. 취임 후 두 달 만에 4차례나 광주를 방문하는 셈이다.

국민의당도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안정적인 지지세를 확보, 이를 수도권으로 확산해 전국정당의 면모를 갖추겠다는 전 략이다. 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선거 운동 초반인 이번 주말 1박2일 일정으로 대거 호남을 방문, 세몰이에 나설 계획이 다. 호남에서 '야당교체론', 수도권에서 '정치혁신론'을 내세워 승부를 겨루겠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선거벽보 붙었다 제20대 총선 선거벽보 제출 마감일인 30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주민센터에서 북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제출된 북구을 선거벽보를 기호순번에 따라 정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는 것이다. 안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서울 노원병) 선거도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고 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

이런 가운데 선거 초반 이슈로 '야권 연대'가 부상하고 있다. 더민주는 연대 압박에 나서고 있는 반면 국민의당은 '양당체제 정치독점시장의 종언'을 강조하며 단일화 거부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호남에서는 경쟁, 수도권에서 는 연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는 점에서 국민의당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 다. 야권연대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더민 주 측의 통 큰 결단과 제의가 우선돼야 한 다는 지적도 나온다. 호남을 제외하고 두 당의 지지율 격차가 있는 현실에서 더민주 가 무조건적인 연대만 주장한다면 이는 사

김은영의 그림 생각 - 안개 ▶3면

동료에 38억 등친 사기꾼 교사 ▶6면

곽정철·한기주 개막전 엔트리 ▶20면

실상 국민의당 후보들에게 선거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의당에서는 더민주의 야권 연대 주장이 현실적인 상황도 있지만 배후에는 선거 구도를 새누리당-더민주의 양당 체제로 이끌려는 전략적 측면이 크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또, 후보단일화 자체가 양당 체제로 편입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다당 체제'를 추구하

는 국민의당에게는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도 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선에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 구도로 가고 총선에서는 야권이 경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 고 있다. 야권 경쟁 구도만이 호남 정치의 종속 구도를 깰 수 있으며 대선에서 호남 의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유권자 64% "반드시 투표" $\cdots$ 선택 기준 인물 $\cdot$ 정책 $\cdot$ 정당 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총선 유권 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유권자 64%가 반 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30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 원선거에 '매우 관심있다'고 응답한 사람 은 70.8%로 지난 제19대 총선에 비해 5. 2%p(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은 63.9% 였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같은 시기에 조 사한 결과(56.9%)와 비교하면 적극적 투 표참여 의향층이 7%p 증가했다.

사전투표와 관련해선 유권자 81.1%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총선 유권 사전투표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후보 선택 기준으로는 '인물·능력'이 35.1%로 가장 많았고, '정책·공약' 27.3% 였다. 그 외 '소속 정당'이 16.0%, '정치경 력'이 5.8%, '주위의 평가' 4.0%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중앙선관위가 (주)리서치 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1 일, 22일 양일간 전화면접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0.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 준에서 ±2.5%p이다. /이종행기자golee@ 예술 꿈나무들의 큰 잔치 그 나시 그 나시 그 나시 그 나시 그 지 전국대회

**접수** 음악·무용·국악 4월 6일(수)∼12일(화) 미술·작문 5월 16일(월)∼18일(수)

전국 최고의 종합예술제전 '호남예술제'가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부대학교, 광주패밀리랜드, 우치공원 등에서 열립니다. 국내 최대·최고 종합예술제전인 제61회 호남예술제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 바랍니다.

■참가자격: 국내 거주 전국 초·중·고등학생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일부 종목 성인 참가 가능(한국무용, 국악) ■ 경연기간: 4월 20일(수) ~ 5월 26일(목) ■ 참가부문: 음악·무용·국악·미술·작문

■접수방법: 방문신청: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우편신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호남예술제 담당자앞

인터넷신청 : http://art.kjmedia.co.kr (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 경연일정 :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후 확정 4월 18일(월) 발표) ■ 시 상: 우수한교상 우수지도상 수여

■시 상: 우수학교상, 우수지도상 수여 국회의장상(예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예정) 개인 -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단체 -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문 의: 062-220-0541

■주 최 : 광주일보 · 아시아문화

후 원: 광주광역시·전라남도·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

光则日报

### 광주연구개발특구, 나주 혁신도시까지 확장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의 연구개발 특구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등으로 확 장하기로 했다. 이르면 5월께 연구용역 을 마무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신청 서를 낼 예정이다.

전남도는 30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대학, 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와 광주시, 나주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연구개발 특구 확대 지정 육성방안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전남도와 광주 시는 광주 연구개발 특구를 빛가람 혁신 도시 일원까지 확대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승인을 받기 위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에너지밸리 조성 등을 위한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에 연구개발특구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감하면서 빛가람혁신도시, 나주 혁신산단, 동신대, 광주도시첨단지구 등 4. 72㎢(광주 1.46㎢, 전남 3.26㎢)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받으면 광주 연구개발특구는 23.45㎢가 된다. 빛가람혁신도시지구는 에너지 밸리 클러스터 조성, 나주혁신산단은 에너지신산업과 친환경부품산업 유치, 동신대는 스마트에너지 기술연구 및 인력양성, 남구 도시첨단산단은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및 문화산업 연구개발등을 맡게된다. /윤현석기자chadol@

